



강정 시인의 일곱 번째 신작 시집 『그리고 나는 눈먼 자가 되었다』

지구가 손톱 안에 고여
다시 죽을 때까지 깨물며 운다
걸을 땐,
다리어 사라져라
네가 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땅이 너를 밟하지 않도록

ISBN 979-11-956227-0-2 03810 158쪽 양장 값 10,000원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한국 현대시의 진정한 아나키스트, 강정의 신작 시집!

1992년 등단해 6권의 시집을 낸 강정 시인을 가장 적확하게 묘사하자면, ‘감각적 무정부주의자’로 부를 수 있다. 그의 시 세계는 무정부주의와 함께 사회적인 나이를 먹지 않으며, 시적 자기 갱신을 통해 당연하게도 그의 언어는 늘 생생하며 젊다. 그의 새로운 시적 실존의 추구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고스란히 기존의 언어 체계에 갇혀 있다는 모순된 깨달음과 겹쳐지는 순간에서 비롯된다 그 언어의 감옥은 곧 자신의 몸인데, 그 몸을 벗어나려는 안간 꿈은 죽음·재생의 강박관념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자학적·가학적 파괴 행태로 이어지며, 그것을 통해 몸속에 갇힌 원초적 감각의 소리를 포착하고 해방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 노력이 이번 시집에선, 독해지고, 세련되어지며, 나아가 눈먼 광대의 춤과 함께 우주의 리듬을 타고 우리 곁에 찾아온다.

그의 시는 음악이며, 그의 모든 음악은 하늘의 발자국 소리

강정은, 그의 시를 그 자신의 언어로 재현하며 그 속에 집요하게 반복되는 강박적 요소들을 포착한 뒤, 그 조각조각을 재구성하고 종합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이다. 그의 언어는 여과 없이 뻗어지는 대로 뻗는 듯 시종일관 음악과 함께, 춤과 함께, 발자국과 함께 찾아온다. 쉽게 유추되고 조합되지 않는 이미지들과 움직임이 광활한 시적 세계에 날아와 거닌다

“결국 이 광대의 춤은 우주적(보편적) 몸의 리듬, 즉 대지(자연)의 순환의 절대적 흐름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음악은 하늘의 발자국 소리”가 된다. 눈멀고 귀먹은 미친 광대의 춤은 그렇게 절대적인 우주적 몸의 노래가 된다. 저 우주적 순환의 리듬 속에서 삶과 죽음은 서로를 넘나들며, 대지(자연)는 저 광대가 춤추는 관능과 에로티즘의 무대가 된다.”(김진수 문학평론가)

언어로 추는 춤 아니라 “시를 추는 춤” 그 아름다운 현상으로서의 초대!

“어쨌거나 이제 춤출 일만 남았다.” 「시인의 말」의 마지막에 남긴 강정 시인의 이 선언은 이번 시집이 건너가고자 하는 이상향이 ‘저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우리 속’에 잠재한 현실임을 암시한다. “눈먼 자가 되어” “걸을 땀” “다리어 사라져라” “네가 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땅이 너를 밟하지 않도록” 시인의 외침은 마치 주문처럼, 우주적 명령처럼, 우리 앞에 선다. 시(視)가 지워진 자리에 몸(춤)이 남는다. 오해가 없기를, 시어로 춤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강정이 구축한 몸의 시학은, 시가 추는 춤이며, 시를 추는 춤이다.

풀을 춤춘다

아기 손바닥만 한 타원형의, 끝이 뾰족한

오래 잠들어 있던 우주의 비늘들이 펴력인다

— 「풀춤」 중에서

“풀이 춤춘다”가 아니라, “풀을 춤춘다”이다! 풀을 춤추는 자는, 물론, 풀이 된 자일 테다. 그는(또는 풀은), 어느새, 풀이(또는 그가) 되어, 춤춘다. 그렇게 풀은, 풀이 된자의 몸을 통해, 스스로를 춤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풀이 된 자의 춤을 통하여, 그저 “풀이 춤춘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그러니, “풀을 춤춘다”가 아니라, “풀이 춤춘다”이다! 놀라운 주객전도와 물아일체의 광경이다. (...) 문장의 의미론적 맥락에서 주체와 대상은 분리되지 않고 한 몸을 이룬다. 주체가 대상을 춤춘다! 그때 대상은 이미 주체다. (김진수 문학평론가)

저자 소개



강정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2년 『현대시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처형극장』 『들려주려니 말이라 했지만』 『키스』 『활』 『귀신』 『백치의 산수』 등 6권의 시집과 『곰마, 씨』 등 4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시로여는세상 작품상>, <현대시 작품상>, <김현문학패>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나는 눈먼 자가 되었다

차례

망실공비 패턴	서쪽에서 온 육자배기
생활	풀춤
그림자의 표본	나 홀로 기생
아들야들	하얀 곰팡이
대기의 젓가슴	수장된 미래
하늘과 음악	말들의 말
말의 살	돌의 눈
나폴레옹	돌의 날개
최초의 이명	인화印畵한 지동설
삼중주	불을 꺼안은 여인
소리 천체	모델수업
석순의 기원	마담龐譚 백수부 씨의 시네마토그래프
잠수한계치	향기는 섬의 뿌리에서
창조의 맛	오름 극장 1
그믐, 우는 소리	오름 극장 2
누드 입상	진짜로
우뚝 삼킨 삼대三代	맹활
시간의 우물	그리고 나는 눈먼 자가 되었다
코트의 영혼	
썩은 사과	시인의 말
살인자의 나들이	
	感•눈먼 광대의 춤, 혹은 우주적 몸의 노래 _
	김진수(문학평론가)